

수익사의 사회적 위상과 그 수익 적성

지상의 모든 합법적인 직업들은 나름대로 그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생겨나고 또 그들대로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성쇠를 달리하여 왔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여도 직업에 대한 인기도나 선호도는 다르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의 위상은 그 직업군의 사회적 중요성외에도 다른 필수적 몇 가지 요소들을 반영한다. 물론 사회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면 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있는 직업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 중요성을 따지자면 인류 생존의 필수재화를 생산하는 1차 및 2차 산업 종사자가 최고의 위상을 지니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자 농민이란 직업군인데도 말이다. 여기에서 그 직업인 평균인 한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재화와 영향력은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이다.

전제군주제도하에서 지식인들은 정치인이며 관료인 벼슬아치가



이 성 환
이성환동물병원장

되고자 평생을 바쳤다. 사회적 영향력을 대표하는 권력과 부가 일거에 획득되고 가문의 신분도 상승되기 때문이다. 생전에 작은 벼슬도 얻지 못하고 이승을 뜨게 되면 위로의 뜻으로 남자에게 학생(學生)이라는 그리고 여자에게는 유인(孺人)이라는 일종의 벼슬호칭을 썼다. 오늘날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권력 그 자체의 매력에 이끌려 국민의 종살이를 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류가 모듬살이를 시작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여러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것이 권력이므로 그 중압이 대단할 터인데도 그것을 획득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가

밝다는 증거라고 믿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부려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한다면 경영자에게도 상당한 권력이 있게 마련이다. 많은 업무상의 결정권이 다 인사권을 지니게 되니 이는 권력이 된다. 물론 직위에 따른 경제적 보수도 최고도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정권다툼이 있고 경영권 다툼이 있다. 권력의 피라미드에서 정점에 가까워 질수록 동급자의 수는 줄어들고 이에 반비례하여 그 권력의 크기와 직업으로서의 선호도는 커진다.

그 종사자수가 굉장히 많은 직업은 다시 말하자면 아무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또는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희소성이 결여된 이런 직업군에 대한 대우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낮은 대우로도 그 자리를 매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논리로 볼 때 잘 대우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가 상류중산층이라고 한다. 이 지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직업군이 소위 전문직(Profession)이다. 예로부터 전문직에는 성직자, 법률가, 의사 등이 꼽힌다. 전문직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이 요구되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다루는 분야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분야여서 특별한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오늘날 수많은 직종이 전문화되고 국가가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수 없이 많고 교육의 정도도 유열을 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앞에 열거한 직종들이 여전히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우리 수의사도 자리매김을 하였다. 지식과 오랜 숙련을 요구하며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고급직업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수의사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의사를 전문직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수의사란 직업은 인류의 역사상으로 볼 때 상당히 신중직업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상에서도 '소침

쟁이'에서 '수의사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직업이라기보다는 부업이라고 보는 것이 나올 '소침쟁이'는 본업인 농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나 다른 가축의 치료에 관한 나름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를 받거나 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고 간헐적으로 치료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서양식 수의학교육과 수의사 면허제도가 도입되고 그를 통해 배출된 수의사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하면서 우리 수의사들의 직업적 위상을 쌓아올려 왔다. 쟁이의 대열에서 전문직업인(Professional)의 반열에 올려놓기까지 수의사들의 노력도 물론 지대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천이 더 큰 몫을 하였다. 우리들의 노력이 충분치는 못하였고 지금도 주어진 기회를 살려 발전시키기는 커녕 퇴행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팔을 걷고 나서는 이도 많지 않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수의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이고도 부단한 노력 끝에 오늘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인이 된 것이다. 미국에서의 소동물 임상은 참고

에서 나무로 된 술통 진료 테이블 위에 개를 올려놓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수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개발과 자기규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수의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에서 또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열매는 다음 세대의 수의사들 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질이 미달되는 수의사는 동료라고 무조건 감싸려 들지 않았고 면허상의 제제를 가하고 환자와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수의사의 자질을 강화하고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양하였다.

교육제도의 정비와 엄밀한 시행이 또한 큰 몫을 하였지만 수의사의 수급을 적절히 하여 수의사들이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천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나라에도 교수직에 있고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자기 지역의 대학에 수의과대학을 설치하여 다른 주로 유학가지 않아도 되게하

고 싶은 정치인들도 있을 터인데도, 주마다 수의직 공무원들을 채용하여야 할 터인데도, 주 하나가 남북한 합친 넓이보다 더 큰 것이 예사인데도 수의과대학이 있는 주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수의사의 위상은 우리 수의사들이 가꾸어 나가고 지켜 나가야 한다.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생산과잉으로 값이 떨어지면, 반도체생산에서 보듯이,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생산라인을 폐쇄한다. 세칭 빅딜이라는 회사들의 통폐합도 한다. 그리고 가격이 적정선에 오르면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하며 생산의 정상화를 시도한다. 이는 사활적인 문제이므로 라이벌 기업간에도 가격안정화를 위해 협조를 한다. 한편 반도체제품은 그 수명이 길지 않지만 한번 생산된 수의사의 직업적 수명은 40년정도이다. 반도체는 기왕의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수의사는 한 번 생산되면 자연수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수의사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끌어안고 가야만 한다. 그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행복도 끝어안아야 한다. 반도체는 가전제

품에도, 의료기에도 쓰이고 무기에도 쓰이는 등 그 사용처가 무제한 적이지만 수의사의 용처는, 많다고 강변을 하여도, 실상 극히 제한적이다. 수의사의 근본적인 용처는 수의임상과 공중위생 분야이다. 의사의 경우에서 그러하듯이 수의사도 그 사회적 표현형질은 임상분야이며 현재의 대표 표현형질은 소동물임상수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분야에서 볼 때 임상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소득이 적고 위상이 낮다면 공무원으로 나가든 교수직을 갖든 연구실에 종사하든 회사에 취직을 하든 간에 별다른 우월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임상을 하면 대우를 잘 받을 직업인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우를 할 필요가 자연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예로 의과대학 기초과목 교수중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수당을 주는 대학들이 있다. 꼭 같은 일을 하여도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물론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동물약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수의사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업계에서 약사들은 대부분 약사수당을 받는다.

갈 데가 많다는 것은 옳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없다는 것과도 같다. 나사는 아무 기계에나 쓰이지만 핵심고급부품은 정해진 곳에서만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의 척도로 임상수의사의 위상을 보면 된다. 임상수의사가 대우를 받는 사회이면 어느 관련분야에서 일하더라도 귀한 수의사라는 이유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다. 수의사의 수급 조절에도 임상수의사의 일일업무량이 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의 임상수 의사들에게는 일을 기다리러 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가들 자신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계속 당하여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상태인 것으로 여기게 까지 되어 버린 것이다. 아침 9-10 시부터 저녁 9-10시까지 12시간 이상을 그것도 토요일도 없고 더러는 일요일도 없이 10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서 소위 근무시간중에 신문도 보고 더러는 TV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식사도 대중대중 해결하면서 아무 때나 오고싶을 때 오

는 고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일이다. 수의사가 아니라 진료 보조원이 해야 할 많은 일들, 고품위의 손으로 저품위의 일을 하면서 보낸다. 하루 중 실질적인 진료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은 3-4시간도 되지 못하는 잠재실업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사들을 그렇게 사는 것이 수의사 본래의 모습인줄 알고 있다.

자리가 좀 잡힌 외국의 보통정도의 소동물병원에 가보자. 수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그날의 일거리가 도착하여 수십 개의 케이지에 수용되어 있다. 목에 내원이유가 적힌 띠를 두르고 말이다. 수의사는 수명의 진료보조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정표대로 정신없이 오전 진료를 하고 한두 시간의 점심시간을 내어서 식사 및 운동이나 휴식에 할애한다. 또 그렇게 오후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동물들을 진료보조원에게 주인이 찾아오면 되돌려주도록 말기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환자와 수의사의 수가 적절하기 때문에 예약제가 정착이 되고 수의사는 자신의 어느 시점의 업무량을 대체로 예측하

고 조절할 수가 있다. 늘 수의사가 개점휴업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번거롭게 미리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리가 없다.

필자의 경우, 1988년경에는 일하러 출근을 하였고 시간이 되면 서둘러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였다. 진료시간은 일반직장과 유사하게 하였으나 토요일을 평일과 같이 하여 평일에 오지 못하는 직장인을 배려하였다. 동물진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1-2시간을 기다리는 고객들도 많았고 그리 불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환자가 충분하면 그들의 요구대로 만 진료하여도 다음 사람이 오래 기다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한국의 소동물임상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고 용품의 취급이나 미용실의 운영 등은 생각해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소위 재테크에 관해서도 눈을 주지 않았다. 수의사로서의 일거리가 계속 주어질 것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임상 그 자체의 질을 향상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나의 생활은 자연히 보장되리라고 믿었다. 수가가 비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약도를 그려서 다른 병

원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퇴근 시간 이후까지 진료가 이어질 경우에는 고객들이 무척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그러하지 아니다. 도처에 같은 이름을 내건 대체품들이 무수히 생겨났지 않은가? 수의시장은 어렵게 근접하였던 판매자의 시장에서 이미 구매자의 시장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임상 수의사중에 더러는 구멍가게 주인 수준으로 자신의 직업적 자존심, 직업적 위상을 설정해 두고 생존을 위해 처참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끔 수의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수의 약업계 동료들을 만나면 반쯤은 농담삼아 나무라게 된다. 우리 나라 굴지의 인체약품 회사들이 고용한 의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되물으면서 오퍼상 비슷한 소규모회사가 감히 수의사를 고용할 엄두를 내느냐고, 수의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위상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 너무 주눅이 든 탓일까?

1999년도에 대한민국은 800여명의 수의사를 생산하였고 평균적으로 전국 10개 대학에서 년 400명의 수의사를 생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서울에 소재한 동물병원이 400여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의 병원의 수의사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잠재실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연평균 400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수의사가 생산되고 있다. 올해에 생산된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39년까지 수의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 수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부여받고 자신의 직업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며 그리고 또 내년에 생산될 그만큼의 수의사들을 이 좁은 배에 탑승시킬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해도 그 다음해도 약간의 승객이 내린 자리에 몇 곱절을 태워야 한다. 금년 면허취득자들은 이미 초만원 상태의 수의(獸醫) 마당에서 당장에는 공격군이 되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수의직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잘되면 마음에 차지는 않더라도 자기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리를 잡자마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로부터의 공세를 막기 위한 수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내년에도 그 다음 해도 끝없이 오늘의 자신과 같은 입장인 대량의 공격군들을 맞아야 할 것이다. 그게 끝없이 이어진다면 수의업은 안정되지 못할 것이고 발전하지 못 할 것이고 좋은 인재를 확보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국민들은 원하는 수준의 수의학 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양질의 수의사를 수입 하자는 말이 나올 법도 하겠다. 생산이란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다. 생산한 만큼 소비되게 마련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수의사라는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꾸준히 공장의 수를 늘리고 총생산을 늘려온 수의사공장들의 임직원들도 다른 배에 타고있는 것이 아니다. 돛대의 꼭대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가 가라앉으면 누구도 안전치 못하다. 무작정한 생산은 기존의 수의사들과 장차 출현할 수의사들의 위상을 수의사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상쇄할 수 없을 만큼 깎아내려 버린다. 사회의 변천이 가져다준 위상의 상승을 제살 갹아먹기로 떨어뜨리고 있다. 1976년에 몇몇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몇몇 수의사들과 무지한 관료들에

의해 내다버려진 6년제 교육제도를 되찾아오는데 20년이 더 걸렸고 그사이 수의사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다.

미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동포 수의사는 활동 고객이 6,000정도에 이르니 임상이 안정되고 자신의 패턴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여 볼 때 현재의 수의사 식구들을 안정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인이 되게하기 위해서 서울에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얼마나 있어야 할까? 우리 수의사의 수요는 동물의 수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한때는 수의사의 수가 늘어나야 사회적 발언권이 커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정된 파이를 나눠 갖게 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입이 많을 수록 대외적으로 발언권이 없어진다. 무한한 유권자를 가질 수 없으면 소수정예만이 대우를 받는 길이다. 수의사가 진출할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라는 이야기이니 수의사의 수를 늘릴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수의사의 수요는 수의사가 아니면 안되는 자리의 수

에 기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늘리기를 보통 반대해 왔으며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면 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대학의 정원을 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일단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의사가 과잉상태가 되더라도 없앨 수가 없어서 탄력적인 의사숫자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지역 민원을 들어 신설을 주장하면 보사부와 기존의 의과대학들이 반대를 하여 의료인의 수를 나름대로 조절해오고 있다. 그런데 1975년 1개의 수의과대학에서 현재 10개의 수의과대학으로 늘어나기까지 어느 기관에서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반대를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증설로 인해 당장의 이익을 얻는 무리에서는 적극적이었고 그로 인해 두고두고 피해를 당할 무리에서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방의 수의직 공무원모집에 응모해 오지 않는다는 논리로 수의과대학 설립을 요청하다니 수의과대학이 공무원 몇 사람을 배출하는 문을 닫는 그런 기관으로 안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졸업생들을 전원 그 지방의 수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의사들이다. 진단이 나

왔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수의업을 기립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수의사 위상격하의 1차적이고 주된 원인은 수의사 인구과밀이다. 과도한 수의사 생산이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주사로 될 것 같으면 주사기를 들자. 각 분야의 수의사들이 모여 우리 나라의 규모에 알맞은 수의사의 숫자를 산출해보자. 향후의 수의사 수요와 자연 도태를 감안한 수의사 출고 주문서를 작성해 보자. 네 학교 내 학교를 따질 일이 아니다. 모두를 없애고 '대한 수의과대학' 하나로 만들어도 좋다. 우리 나라가 대학 소재지가 멀어서 못 갈 만큼 큰 나라가 아니다. 우선 두세개 수의과대학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보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수의과대학 2개의 교수진을 합쳐도 필요교수정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서둘러야 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둘러선 가족들에게 우환이요 신생아 자신에게는 불행인 출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미 옆질러진 수의사 수급이지만 주어 담는 동안에 추가로 쏟아지는 않도록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수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정원을 전국단위 총수로 결정하고 대학

별 교육능력을 평가하여 그 능력에 맞게 정원을 배분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조정하여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 개인들이 퇴출되는 시대이다. 어느 곳에도 쇠뿔그릇은 없다. 학교라고 예외이겠는가? 교육생산의 과오는 100년이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않는가?

전체를 살리는 결정에 사사로운 이익을 내세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존의 모든 수의사들은 표피적인 작은 땅따먹기에 잔뜩 신경을 쏟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딛고 서있는 지반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제 침묵을 걷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출하지 않음은 스스로를 돕지 않음이요, 목졸리고 있는 동료들을 방치함이요, 후배 수의사들에게 물려줄 수의업의 농경지를 망쳐놓음이다. 동시에 우리 수의사를 대변하고 관리하는 모든 관계기관에서는 그 존립의 목적에 상응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심각한 문제 조속히 풀어야 한다.

왜 거기 그렇게 있는가?

